

광주 '광산업 주치의' 뜬다

기술·경영·마케팅 등 종합처방 센터 4월 가동

70억 투입 ... 30분 근거리서 현장 밀착형 지원

광주 전략산업인 광산업 기업들의 기술과 경영·마케팅 등을 종합 처방하는 '광산업 주치의'가 뜬다.

14일 지식경제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 남부본부에 따르면 오는 4월 광주 첨단산업단지에 광(光)관련 중소기업들의 기술과 경영, 금융 등을 지원할 '기업주치의센터'가 설치, 가동된다. 반월시화산업에는 부품소재, 구미산업은 전기전자, 창원산업은 메카트로닉스 관련 기업들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고 50억원과

기업은행 기부금 25억원 등 총 75억원을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주치의센터는 30분 이내의 근접거리에서 일정 기업들을 전담 관리하면서 기업 맞춤형·현장 밀착형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업의 애로사항 수렴부터 성장 아이템 발굴·지원까지 체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게 목표다.

센터에서는 기술과 경영, 금융 전문 주치의가 배치돼 활동한다. 기술주치의는 테크노파크·산업단

지클러스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지역혁신센터 등 지역 혁신기관과 연계해 중소기업의 성장 아이템 발굴, 공동연구 개발 및 기술이전계약, 기술 사업화 전략 등의 컨설팅을 제공한다.

경영주치의는 상품마케팅 전략, 원자재 구매전략, 조직문화 개선, 성과보상제도 개발 등의 경영 컨설팅을 담당하고, 금융주치의는 정부지원자금 선별소개, 대출·신용보증·투자기관 연계지원, 환위험 및 채권관리방안 지도 등의 컨설팅을 맡는다.

특히 주치의 중 선임 컨설턴트로 구성된 중견기업육성 전담팀을 운영해 중견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16일 기업 주치의 센터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사업 신청서 접수 및 지역평가 및 중앙평가 등을 거쳐 4월부터 기업주치의센터 사업을 본격화 한다.

또 기업주치의센터의 지원 기간을 3년으로 하는 대신 매년 평가를 통해 전문가 교체 및 프로그램 보강, 사업시행자 교체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경수 지경부 지역경제정책관은 "기업주치의센터는 종합적인 컨설팅을 통해 기업들의 복합적인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기업들에게 성장 전략을 제시하고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로 중견기업 육성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 어업생산량 4.4% 증가

지난해 102만8467t ... 생산금액 1조7440억 집계

전국 생산량은 312만t ... 기상악화 탓 소폭 감소

지난해 기상 악화로 우리나라 어업생산량이 소폭 줄었지만 전남지역은 다소 늘어났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어업생산동향' 잠정 조사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어업생산량은 312만6000t으로 전년(318만2000t)보다 5만6000t(1.8%)이 감소했다. 지난해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113만4000t, 원양어업은 59만2000t으로 각각 7.5%와 3.6%가 줄었다.

통계청은 지난해 이상수온에 의한 자원 감소와 태풍 등 기상악화로 어업 생산량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대표적 연근해 어종인 고등

어(-43.2%), 갈치(-30.7%), 오징어(-15.9%) 등은 감소한 반면 멸치(22.5%), 꽃게(6.0%) 등은 생산이 늘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오징어 1kg당 연평균 가격은 3568원으로 전년 대비 72.8%나 급등했다.

원양어업의 경우 오징어(-22.7%), 가다랑어(-15.8%), 콩치(-9.5%)의 생산이 줄었으나 명태(19.7%), 황다랑어(82.3%)는 증가했다. 현해양식어업은 미역(40만4000t, 29.4%)이 가장 많이 양식됐다.

하지만 어업 생산금액은 지난해 7조4137억원으로 전년(6조9242억원)보다 7.1%(4895억원)가 증가했다. 이는 어업 생산량 감소에 따른 연·근

해어업 및 원양어업 어획물의 출하가격 상승 때문이다.

지난해 내수면어업 생산량은 3338억원으로 21.9%가 늘었고 원양어업은 1조3764억원, 연근해어업은 3조9139억원으로 각각 18.3%와 7.5%가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전남지역 어업생산량은 102만8467t으로 전년(98만5068t)보다 4.4% 증가했다. 생산금액도 전년(1조5820억원)보다 1629억원 늘어난 1조7449억원을 기록했다. 어업별로는 연근해어업 16만9845t(7554억원), 천해양식어업 85만1489t(8561억원), 내수면어업 7133t(1334억원) 등이다.

전북지역은 7만7644t, 2197억원으로 전년(8만7117t, 1970억원)보다 생산량은 10.9% 감소했지만 생산금액은 4.4% 증가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깨끗한 전통시장 만든다

올 클린점포 200곳 육성

정부가 전통시장에 청결도가 우수한 점포나 친환경 매장을 차리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15일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클린(Clean) 점포와 그린마켓(Green Market)을 육성하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기청은 야채와 과일, 생선, 식품, 정육, 쌀 등 6대 먹거리를 취급하는 전통시장 점포 200곳을 올해 안에 클린 점포로 육성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도시 등에서 온 고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도농교류카페'도 그린마켓에 설치해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연합뉴스



"대중교통 이용합시다"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당신은 진정한 에너지 절약 천사'라는 홍보물을 들고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100억 미만 종합공사 입찰 지역제한 유지

전문공사는 7억 미만

지역제한 입찰 기준 금액이 현행과 같이 100억원으로 유지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일정규모 미만의 공사에 관할 시·도 소재한 건설업체만 입찰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제한 입찰 공사 대상금액을 현행과

같이 종합공사 100억원, 전문공사 7억원 미만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2009년 3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의 종합공사 제한입찰 기준액을 2년간 한시적으로 70억원에서 100억원 미

만으로 상향조정했으나 이번에 시한 없이 100억원 미만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다시 규칙을 바꾼다. 전문공사는 6억원에서 7억원으로 늘었다.

건설공사 이외의 전기·정보통신·소방 공사의 지역제한 입찰 금액 기준도 현행 5억원 미만으로 유지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무역수지 12개월 연속 흑자

지난달에도 30억달러

수출 호조로 무역수지가 지난달에도 30억달러에 육박하는 흑자를 기록하는 등 12개월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갔다고 관세청이 15일 밝혔다.

관세청이 이날 발표한 '2011년 1월 수출입동향(확정치)'에 따르면 지난 달 우리나라의 수출은 작년 1월 대비 45.4%가 증가한 449억8000만달러, 수입은 32.4%가 늘어난 417억6000만달러로 29억2000만달러의 흑자를 나타냈다.

수출은 주력품목인 선박(275.5%), 승용차(55.2%), 석유제품(53.8%), 철강제품(47.5%), 무선통신기기(27.6%) 등의 수출이 크게 늘어 올레 수출 목표 달성에 청신호가 되고 있다

코스피지수	2,010.52 (-4.07)
코스닥지수	520.88 (+0.53)
금리 (국고채 3년)	3.95% (-0.02)
원·달러 환율	1,119.30원 (+3.50)

*수치는 전월 증가 기준

'토목구조용 파형강판' 등 중순 2곳 성능 인증 받아

(주)팍슨의 '토목구조용 파형강판'과 (주)케이오더블유 '부유분수형 수질정화장치'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성능 인증을 받았다.

광양 소재 팍슨(대표 정성만)은 토목 구조용 파형강판 관련분야에서 두 골 파형강판보다 강성이 높고 지하하중에도 잘 견디는 세골 파형강판을 개발, 공기단축 등 미래지향적 토목 건설시장의 요구에 부응한 제품으로 인정 받았다.

광주 하남산업의 케이오더블유(대표 박순)는 호수 등에서 모터와 특수 회전체를 이용해 분사하는 장치를 개발했는데, 적은 소비전력으로 많은 양의 물을 멀리 분사시켜 수중의 용존산소량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기아차 K5 '출시 효과'

국내 중형차 시장서 14년만에 2위 되찾아

국내 중형차 시장이 2위 자리다툼으로 뜨겁다.

기아자동차가 작년 이 급에서 만년 수위인 현대차의 쏘나타에 이어 14년 만에 2위 자리를 되찾으면서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는 작년 '디자인 결핵자'라 불리는 K5 출시 덕에 중형차 7만9491대를 팔아 15만2023대가 팔린 쏘나타에 이어 중형 세단 부문 판매 2위에 올랐다.

기아차가 중형차 시장에서 판매 2위를 차지한 것은 지난 1996년 크레도스가 2위에 오른 이래 14년 만이다.

크레도스는 당시 9만1982대가 팔려 대우차의 프린스를 3000여대 차이로 제치고 쏘나타에 이어 2위에 올랐지만 이후 줄곧 3위에 만족해야 했다.

1998년 삼성차의 돌풍으로 중형차 4대 중 4위를 차지하는 굴욕까지 겪었다. 쏘나타는 8040대가 팔려 역시 1위를 내달렸다. /*연합뉴스

한국 자동차 생산 6년 연속 세계 5위

한국이 지난해 자동차 생산대수에 6년 연속 세계 5위를 기록했다.

15일 한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한국은 2010년 한 해 동안 역대 최고치인 427만2000대를 생산해 6년 연속 세계 5위에 올랐으며, 생산 비중은 5.5%를 차지했다.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자동차 내수 부양책에 힘입어 1826만5000대(생산 비중 23.7%)를 생산, 2년째 1위에 올랐다. 일본은 친환경차 감세 및 보조금 지급으로 전년 대비 21.3% 증가한 962만6000대를 생산,

2위를 유지했다. 미국은 경기회복과 '빅3'의 경영정상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35% 증가한 773만8000대로 3위, 독일은 590만6000대로 4위에 각각 랑크됐다. 이밖에 브라질(363만8000대), 인도(353만8000대), 스페인(238만8000대), 멕시코(234만2000대), 프랑스(225만대)가 6~10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전 세계 자동차 생산은 미국 시장 회복과 신흥 시장의 수요 증가로 전년 대비 23.4% 증가한 7701만5000대에 달했다. /*연합뉴스

열심히 일한 당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I LOVE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과도한 업무, 무한 경쟁압박, 쌓이는 스트레스로 인한
과로, 잦은 과음으로 지치고 힘든 나의 간-
이제, 사랑이 필요합니다!

미래의 성공한 인생과 행복한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한
당신을 진심으로 존경하며,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간장질환은 우리나라 국민 전체 사망 원인 중 5위를 차지하고, 특히 40대에서는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간장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만성 간장질환자의 60~70%가 바이러스성 간염과 관련되어 있으나, 알코올이나 약물, 비만 등도 간장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인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잦은 음주로 인한 알콜성 간장질환자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보다 건강한 내일을 위해 국제약품이 함께합니다.

간장보호기능 생약성분 및 비타민 복합제

리버비타 연질캡슐

손상된 간세포와 간조직을 재생하는 - Carduus Marianus Extract가 함유된 만성 간질환, 독성 간질환 보조 치료제

*기타 제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국제약품 본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람동 53-2, 개빌/마케팅 TEL: 031-7681-9080)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광고심의필: 1091-0300